

박 복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추상미술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 중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임 선 진

추상미술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 중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

박 복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임 선 진

인 준 서

임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중학교 미술교육 과정을 보면, 미술교과의 체계나 내용이 1,2,3학년 동안 내내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표현활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미술에 흥미를 잃거나 지루한 인상으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청소년기 미술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중학교 미술시간에 추상표현 작품을 많이 접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는 추상미술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추상미술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하여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설문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학생들의 미술교과 또는 수업 일반에 대한 선호도나 호응도가 낮다는 점이다.

그 결과, 추상미술에 대한 감상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의 호감을 가지기 어렵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없다. 학생들의 추상미술 수업과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서 활용, 실기교육이 부진하다.

결국,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추상적 표현 미술에 대한 감상능력과 의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지원받고 향상시킬 수 있는 추상적 표현행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학교에서의 추상미술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는 미술사 교육, 추상표현을 위한 발상의 지도, 그리고 교과서의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과제와 방법으로 짜여진다. 제 2장에서는 추상미술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상미술의 역사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 본 다음 제 3장에서는 미술교육을 하는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한 후 그 속에서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찾고 제4장은 추상표현 미술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로, 먼저, 조사대상과 조사도구(설문지), 조사절차와 기간 그리고 자료처리의 방법을 설명한 다음, 조사결과 분석과 논의로, 설문지를 통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다.

제 5장은 실증분석을 통함으로써 드러난 현행 중학교 미술교육이 추상적 표현을 지도함에 있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들을 알아본다.

제 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II. 추상미술의 이론적 배경	4
1. 추상의 개념	4
2. 추상미술의 역사와 특징	5
III.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	14
1. 미술교육의 실정	14
2.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	18
IV. 추상미술 교육의 실태-설문조사	21
1. 설문조사 결과	21
2. 설문조사 분석과 논의	23
V. 추상미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VI. 결론	50
참고문헌	53
ABSTRACT	56
부 록: 설문지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22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38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공자들이 아니고서는 미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현실적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기간의 미술교육이 상상력 개발이라는 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고, 고등학교의 미술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입시라는 중압감으로 인하여 교육시수 확보라는 형식적 목적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현행 6·3·3 학제상 지적능력의 발달과 인성의 함양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청소년기 미술교육의 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에 베풀어야 할 미술교육의 목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한 심미안을 가진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그리워 할 줄 아는 심성의 인격을 함양한다는 데에 미술교육의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미술교육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의 육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미술교육은 조형사고에서부터 표현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접근을 요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중학교 미술교육 과정을 보면, 미술교과의 체계나 내용이 1,2,3학년 동안 내내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실정이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 잠재된 소질을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소묘나 풍경화 또는 정물화 등의 사실적 표현에만 빠지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표면적으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 등 다양한 내용구성이 포함되어졌으나 학교실정상 여전히 그전과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미술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미술시간에 스쳐 지나가듯 지나쳐 버린 추상화 이론에만 급급하지 않고 추상표현 작품을 접하고 추상화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대형 미술관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매체의 작품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중학교 미술교육에 추상적 표현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중학교에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추상표현이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특별시 내 소재 중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추상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논의한 후 앞 선 연구를 종합하여, 중학교 미술교육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방안을 찾는다.

Ⅱ. 추상미술의 이론적 배경

1. 추상의 개념

추상(抽象)이란 용어는 회화에서 적용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비구체적(非具體的)이며 애매모호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많은 표상에서 공통되는 측면이나 성질을 뽑아내서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思惟의 대상으로 삼는 정신 작용 또는 어떤 屬性, 또는 특성을 다른 사물 또는 경험과의 결합 상태에서 분리하거나, 혹은 하나의 全體로서의 경험에서 抽出하여 파악하는 심적 작용¹⁾을 일컫는 것이다.

서양에서 추상(abstraction, Abstrakt)은 라틴어 ab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어떤 대상에서 근원적인 것을 추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²⁾. 즉,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특성을 요약, 발췌, 독립시키거나 정비해 가는 작용을 말한다. A. H. Barr는 추상을 '자연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될 때 묘사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한 형태로서 관념이나 상상으로만 존재해 오는 것을 지칭하며 시초부터 자연대상에 의존함이 없는 예술가의 선형적 사고의 소산인 것이다.³⁾

이와 같은 의미의 추상성이 회화에서 적용되어, 그 의미도 현실세계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비사실적이고, 애매모호한 형태를 그림 속에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전체의 상 가운데서 특수한 것을 간추려

1) 이희승,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1961, 3667쪽.

2)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1993, 13쪽.

3)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94-95쪽.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화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質料에 의해서 성립될 수가 있다. 즉, 선이라든가 색채, 또는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그림의 표면구조는 구상적인 형태를 나타내지 않아도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물이 되므로 순수 추상회화는 회화표면에 나타난 색채의 형태가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이전에 그 자체로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라는 회화의 구조적 本質에 대한 自覺의 所産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추상미술의 역사와 특징

미술에서 추상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와 그 근거는 정확하지 않으며 누가 먼저 사용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미술사상에서 다루어지는 추상미술은 1910년대에 이르러 탈 전통회화의 새로운 사조들에 의해 형성되어진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대두된다.

이때부터 추상, 그리고 추상 미술이라는 말이 새로운 예술로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비구상, 비대상, 구체미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세기에 들어와 등장한 현대 추상미술은 현대문명의 형성, 전개와 깊은 관계로 엮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야수파나 입체파와 같은 미술사조가 아니라 더욱 넓은 의미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내면도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전개 역시 복잡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알프레드 바(Alfred Barr)는 추상미술의 두 가지 주요전통을 인상주의에서 쇠라(Georges Seurat)⁴⁾를 거쳐 큐비즘(Cubism)의 물결을 형성하여 마

침내 기하학적, 구상적 운동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적, 구조적, 건축적 방향과 역시 인상주의에서 출발하여 고갱(Gauguin)과 그 추종자들을 거쳐 마티스(Matisse)의 포비즘(Fauvism), 칸딘스키의 초기 표현주의에로, 그리고 다시 표현적 추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신비적, 자발적, 비합리적 방향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초현실주의와의 관계도 지녀, 지적이기보다는 직관적, 정감적이며, 직선적이기 보다 곡선적이며, 구조적이기 보다 장식적이며, 고전적이기 보다 낭만적이라고 그 특성을 구분한다.

현상의 세계와는 단연히 관계를 끊고, 처음부터 순수하게 추상적인 화면으로 완결시킨 독자적 조형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몬드리안(Modrian: 1872-1944)과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로, 추상예술은 이들 두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그러나 추상회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대체로 1932년 추상창조협회(Abstraction Creation)⁶⁾가 결성된 이후로,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경향의 추상작가들을 포섭함으로써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추상미술은 자연대신에 인간의 철학과 사유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 구상적 형상과 단절하였으며 추상형태는 미술과 미술가들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화가는 눈으로 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인식으로서 칸딘스키와 몬드리안, 말레비치 등 추상의 선구

4) 1859.12.2-1891.3.1, 신인상주의(n대-impressionism)의 선구자로, 예술을 과학화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5) H. W. Janson & Dora Jane Janson, 유흥준 역(1991), 회화의 역사, 열화당, 220쪽.

6) 1931년부터 37년까지 파리에서 결성된 추상예술가의 그룹, 1920년대에는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신조형주의와 데스틸그룹, 칸딘스키에서 볼 수 있는 서정적 표현주의의 경향들로 네 부처나 쿠프카로 대표되는 음악적 추상주의의 여러 가지 경향과 그룹을 맡았다. 1930년에 미셸 쇠포르나 토레스 가르시아가 중심이 되어 그룹 '세르클 에 카레'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1931년에는 '추상창조그룹'이 만들어졌다. 세계미술용어사전, 1997, 중앙일보사, 381쪽.

자들이 있었으며 자연과 무관한 인간의 모든 내면과 감수성,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혹은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의 분출 등을 그들은 표현하게 된 것이다.

추상이란 무의 심연에 직면하는 인간의 반응이고, 그것과 구체적인 세계로부터 추출된 순수하고 본질적인 형태를 말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추상은 심오하고 절대적인 표현의 요소에 의지한다.⁷⁾

오늘날의 추상회화는 20세기 미술의 역사의 주류를 이뤄 왔고 다양한 조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학문과 더불어 산업 혹은 과학기술 등 여러 연구의 제반요소들과 함께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미술계에 장르의 구분 없이 가장 근본이 되는 미술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추상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칸딘스키⁸⁾는 추상회화를 내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며 물질 배후의 정신적인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술작품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성립된다고 보고 내적인 요소는 예술가의 심성 가운데 있는 감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인상, 자발적이며 임의적인 즉흥, 검토와 수정을 거친 구성, 이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하였다⁹⁾.

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육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느껴져서 감정을 유발한다. 즉, 예술가가 물질적인 존재에서 얻은 감동을 색채와 선의 순수조형요소만으로 표현하여 보는 사람에게 그 감동을 환기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술작품의 형식을 결정하고 心性的 振動으로부터 나온 내적요소

7) 조 송(1990), 추상적 상식형식에 의한 초월성 추구,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쪽.

8) Wassily Kandinsky 1866~1944

9) 칸딘스키, 권영필 譯.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2쪽.

는 예술작품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추상표현이란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이 아닌 물리적인 사물을 통해서 얻은 예술가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마음을 색채, 선, 공간에 의한 가장 근본적인 조형요소만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미술의 전통은 그림 내부의 질서를 중시하는 새로운 원리에 의하여 그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현대미술이 그 내부의 질서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을 말한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회화의 공통점은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색채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개성과 주관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되는 현대미술로 나타난 것이다.

현대에 들어 중요한 세 가지의 미술 사조는 표현미술(expression), 추상미술(abstraction) 그리고 환상미술(fantasy)이다.

표현미술이 자신 및 세계에 대한 미술가의 정서적 태도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추상미술은 미술 작품의 형태적 구성을 강조하고, 환상미술은 상상력의 세계를 탐구한다.

이들 세가지 사조는 어떤 특정한 양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 태도에 따르는 것이다.

이들 현대미술 분과의 등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추상 미술로, 이로써 새로운 표현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표현주의 화가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공동사회이며, 추상미술 화가의 경우는 실제의 구조이며, 환상 미술 화가의 경우는 개성적인 인간 심리의 미묘함이다.

이러한 추상미술의 경향은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 칸딘스키, 추상회화에

서 시작하여 이른바 신조형주의를 창조한 몬드리안, 표현주의에서 추상주의를 거쳐, 미국 미술을 일약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잭슨 폴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 화가로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모스크바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나 러시아 민속미술과 프랑스 인상파전에서 C. 모네의 작품에 감명을 받은 나머지 작가와 교수로 미술에 전념한 사람이다.

그가 추상에 접근한 것은 1908년 G. 뮌터와 함께 뮌헨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저녁 무렵 화실로 돌아온 그는 벽에 걸린 한 작품이 내적인 광휘로 빛나고,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형상과 색채만으로 그림이 성립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곧 그림이 거꾸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뒤로 대상이 불필요함을 느껴 모든 표현을 색채에 맡기기 시작하면서라고 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모스크바로 돌아가 1918년 미술학교 교수가 되었으나 1921년 다시 베를린으로 가서 이듬해부터 1933년까지 바우하우스의 교수로서 후진양성과 신예술 개척에 힘쓰고, 1933년 바우하우스가 폐쇄된 뒤 파리 교외의 뇌이쉬르센에 살았으며 1939년 프랑스에 귀화하였다.

그는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이탈, 선명한 색채로써 교향악적이고도 다이내믹한 추상표현을 관철한 후 점차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성적 양식으로 들어갔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1921) 《점 · 선 · 면 Punkt und Linie zu Fläche》(1926) 등의 저술 등이 있다.

칸딘스키와 더불어 추상회화의 선구자이며 신조형주의의 주창자인 몬드리

안(Piet Mondrian, 1872~1944)이 있다.

신조형이란 말 그대로 과거의 조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형을 말한다.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양식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최초의 나무는 무수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점차 단순화 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구성되며 종국에는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직선으로 단순화된다.

몬드리안은 이러한 단순화된 직선으로 자연에 숨겨져 있는 순수한 질서를 찾아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조형주의는 가능한 한 개인의 주관적 정서와 개성을 제거하려고 하며 순전히 기하학적으로 표현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또한, 현대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미국의 잭슨 폴록 (Jackson Pollock, 1912~1956)은 1930년대 무렵부터 표현주의를 거쳐 추상화로 전향하였으며, 구겐하임 부인과 비평가 그린버그의 후원을 받아 격렬한 필치를 거듭하는 추상화를 창출하였다.

특히 1947년에는 마루에 펼쳐놓은 캔버스에 올라가 공업용 페인트를 떨어뜨리거나 튀겨서 전신동작과 행위의 궤적(軌蹟)에 따라 그림을 완성하는 독자적 화법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화가 자신의 몸동작이나 행동의 흔적이 선(線)으로서 화면 가득히 채워져 이미지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화가의 다이내믹한 제작행위를 직접 화포에 기록하는 것이었으므로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 불리게 되었다.

미국미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화가로서 세계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화가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추상미술은 현실적인 대상의 구체적 인 재현보다는 선, 형, 색채 등의 순수한 조형 요소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추상 미술의 언어적 의미는 재현하는 대상이 없는 구체적 예술이다.

이와 같은 추상미술은 20세기 미술 양식 중 가장 대표적인 미술사조로서 우리나라 에서는 1930년대 김환기(金煥基)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후 한국 전통의 영상이나 수묵(水墨)의 기법을 이용한 개성적인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3. 동양예술과 추상

抽象회화는 작품의 내용이 정신적인 것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것이 반드시 현대적이거나 서양화의 전유물 일 수 없다.

추상회화가 사실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것임을 말한 이는 보링거 (Wilhelm Worringer)¹⁰⁾다.

그는 추상이란 어느 한 시대의 특정한 이즘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미술의 한 발전적인 형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링거의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는 고대 원시 미술에서도 발견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갑골문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체에서 만들어진

10) 1881년 태어나 1965년 사망한 독일의 예술사가 이면서, 표현주의 이론가이다. 그의 이론은 “Abstraktion und Einfuehrung ein Beitrag zur Stilpsychologie”(추상과 형상 심리의 도입을 위한 기여)에 담겨 있다.

순수한 추상의 모형이라면, 중국의 갑골문자는 사물형체의 요체를 문자화시켰다는 점에서 자연적 추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중국의 회화에서도 나타난다.

중국 회화에서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왕필(王弼, 226-249)은 그의 미학사상 중 「득의망상론(得意忘像論)」에서, 작가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현상을 정신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그 형상을 초월해야 한다는 이론을 펴으로써 탈대상(脫對象)의 미학을 주창하였다.¹²⁾

이와 같은 동양적 추상은 주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화가 내면적 정신세계를 위주로 하여 전개됨으로 해서 더욱 더 고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석기 시대, 이슬람, 비잔틴 등의 예술에 있어서도 강한 추상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 로마네스크, 고딕시대의 일부장식품 가운데도 강한 추상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잔틴 미술의 모자이크, 중세기 미술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구체적인 형상보다 선과 색의 신비한 아름다움만 표현한 점에서 추상회화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동양예술에서 회화의 6법중 으뜸이 되는 '氣運生動'은 정신성의 우위를 단적으로 보여주어, 중국 육조시대 사혁(謝赫)¹³⁾의 고화품록(古畫品錄)에서 나온 말이다. 영혼의 調和, 생명의 躍動, 영혼의 공명 속에서 일어나는 생기로써 한 폭의 작품 속에 깃들인 정신적인 혼이라 할 수 있다¹⁴⁾.

11)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5, 56쪽.

12) 최병식, 「미술구조와 그 신비」, 예술과 비평사, 1992, 68-70쪽.

13) 500-535경 활동한 남북조의 화가

14) M. 설리반, 「중국예술의 세계」, 열화당, 38쪽.

4. 한국화와 추상

우리나라의 1950년대 후반은 여러 형태의 새로운 예술 지향이 나타난 시기이다.

그 動因과 배경은 한국전쟁의 참담한 체험으로 인한 精神的 시련 끝에 國展을 중심으로 한 변함없는 낡은 가치관의 저항하고 구미의 새로운 美術사조에 대한 충격과 그들의 현대적 창조정신에 의한 자극이라 할 수 있다¹⁵⁾.

1960년에 결성된 墨林會 등으로 한국화는 그 實驗的 추세로서 앵포르멜과 추상 표현주의 정신적인 유대와 동시에 이들의 조형이념과 방법상의 자유로운 태도를 받아들여 소재, 재료, 기법 등의 다양함과 전통 동양화의 번지기 기법으로 추상 표현주의를 해석하여 동양화의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 한국화에서의 추상표현주의의 도입은 6·25동란을 겪은 위기의식의 공통된 상황 하에서 추상표현주의의 방법상의 특징들을 도입하여 조형화 시킨 것으로, 전후 추상표현주의의 근원적인 특징은 구상, 비구상의 어떤 定型도 否定하는 생생한 表現質 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면의 物質性과 마티에르를 중시하고 그것으로 조형방법 그 자체보다는 인간생존의 의미를 다시 묻는 樣態로서 즉 우연적인 효과, 행위에 의한 표현, 과도한 마티에르, 동시성, 공간개념 등을 形態素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조형화 시켜 표현행위와 그 자체의 정신적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이구열. '뜨거운 추상운동의 도입과 전개', 「한국추상미술 -20년의 軌跡」, 계간미술 編, 28쪽.

Ⅲ.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

1. 미술교육의 실정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산업사회는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미술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 성장의 기초적 단계인 학생들에게 감성적 교육을 베풀어, 감성적 정신기능에 의한 정의적 인간성을 육성하자 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미술교육은 영상과 감동을 통한 감성적 인식이 수반되는 교육이므로 인간의 의식 세계에 가장 깊이 작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인간의 의식세계를 심미적인 경험을 통하여 지각하게 하려는 교육이다.¹⁷⁾

미술은 인간만이 가지는 지식(knowledge, Wissen und Kennen)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용도를 떠나서 감성적, 정서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인간의 미술은 문화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기능을 지니고 있고, 이를 가르치는 미술교육은 시각, 촉각 그리고 촉각 등 기본감각을 기르고, 사랑, 아름다움과 슬픔과 기쁨 등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성과 독창성을 키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목적에 이바지 한다.

나아가서, 미술교육은 자신감과 판단력을 지니게 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유용하며, 인간교육이라는 기본바탕 위에 조화적인 인격 형성을 도

16) 노부자, 중학 미술 교과서의 구조 고찰, 한국 조형 학회, 1991, 2쪽.

17) 전상범, 아동과 미술교육, 조형 교육 학회, 1991, 3쪽.

모하고 미적인 정서와 창의성을 길러서 바람직한 사회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¹⁸⁾

미술은 형식(조형성), 표현(창조), 감상(가치)으로 간추려 진다. 여기서 조형은 미술만이 갖는 질서이다.

조형에는 인간의 사상과 직관 및 정서가 포함되어 나타나고 창조와 가치는 예술에 공통적인 특성으로 주체자로서 인간이 가지는 개념, 사상, 감정이 통합되어 가치화 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미술교육은 정서능력, 표현능력, 재로지배능력, 생활 합리성을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인간이 경험하는 표현과정에서 어떠한 훈련도 필요 없이 가장 자유롭게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이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르네 위그(Rene Hyghe)는 미적 표현의 특성을 인간의 정신적 반영에 두고, 미술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그는 이 기본적 기능에 의해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 나간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므로 미술은 현대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교육은 크게 미술을 위한 교육, 미술에 의한 교육, 미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다.

미술을 위한 교육은 미의 생산자로서의 미술가나, 미의 소비자로서의 향유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술에 의한, 미술을 통한 교육은 미의 창조 과정과 미술 활동, 그 자체를 인간형성의 과정으로 하여 미술을 통한 심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²²⁾

18) 이동진(1977), 미술과Curriculum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0쪽.

19) 김재복, 미술과 수업의 평가, 일지사, 1977, 8-21쪽.

20) 김 정,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990, 40-49쪽.

21) 김춘일, 미술교육론, 흥성사, 1985, 133쪽.

중학교의 미술교육이 이에 속한다.

중학교 미술교육은 장차 미술가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문화인의 교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탁월한 표현기교보다는 풍부한 창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손재주보다는 생각하는 머리가 중요하며, 잘 그리고 만들기에 앞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표현을 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감상 활동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의 표현 과정과 감상 과정 자체를 인간형성과정과 동일시하여 미술의 제반 원리를 교육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²³⁾

교육을 위한 예술, 예술을 통한 교육이며 하나의 교육 예술이어야 한다.²⁴⁾ 이러한 미술교육의 의의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부합되는 것으로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는 知, 情, 義가 융합된 전인적 인격 형성 중에서 주로 정의적인 측면의 인간성 육성을 목표로 한다.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다.²⁵⁾

미술 교육은 조형 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자기 표출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느끼기도 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서를 함양하고 미적 창조 활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감정으로서의 인간의 감정적 정신 기능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생을 의의 있고 유효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심성 육성이라 할 수 있는 것

22) 김재복, 미술과 수업의 평가, 일지사, 18쪽.

23) 김재복, 미술과 수업의 평가, 일지사, 8-21쪽.

24) 정순목, 예술교육론, 교육 과학사, 1974, 33-36쪽

25) 문교부, 교사용 지도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0, 16쪽.

이다.

요컨대, 현대 교육에서 미술교육은 미술품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기틀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연구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미술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는 교육목표가 등한시되며 입시위주의 실기교육으로 강의식 일제 수업으로 지도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른 타율적인 학습이 실시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개성이 없고 획일화된 기법 전수에 그치고 말게 된다.

게다가 일부 미술교사들이 자신의 전공에 치우쳐 편파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술교육의 현실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수업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미적 감각을 키워주고 조형 능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생활을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교사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전 영역에 걸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상 현재 중 1, 2학년은 주당 1시간 (1시간 = 중학교 45분) 연간 32시간으로 짜여져 있고 실제 수업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현실 실정에서 사람의 인성을 다루고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미술교과에서 추상회화처럼 준비과정과 작업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분야를 다루기에는 수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미술실이 한 학교에 하나씩 있지만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

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기자재(컴퓨터, 프로젝션 TV, 비디오)시설과 미술 실내에 수도시설, 작품 보관대는 필수적이거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연구하는 추상회화는 그에 따른 준비물이 많으나 그 대부분을 학생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므로 중학교 미술수업에서 추상회화를 언급하기란 사실상 무리라 할 수 있다.

2.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

추상은 결코 기하학적 것만이 아니다. 표현적, 서정적 추상은 유기적, 비기하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표현주의 계통에서 발달한 칸딘스키나 클레의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면모와는 아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평론가 그린버그는 가장 회화적인 추상이 바로 추상표현주의라 했다.

우선 색채와 형태의 윤곽이 불확실하고 또 선은 흔히 잘리고 색채는 분명한 한계 없이 스며드는 표현이야말로 회화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칸딘스키의 내적필연성이라는 말은 표현적 추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과 건축이 추상적 예술형태로 인식되어온 반면, 회화와 조각은 묘사적 예술, 모방적 예술형태로 관념되어져 왔기 때문에 추상미술

26) 이 일, <현대미술의 시작>, 미진사. 1985, 88쪽.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래된 자연물에 대한 기억과 사물에 대한 상기를 몰아내어야 한다.

인습적인 미술의 관심사가 되어왔던 자연의 형체는 내면적 필연성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²⁷⁾

그러나 사람들은 인습에 의해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으며 감상시의 태도 또한 사고하는 태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추상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잘못된 미술 교육에서 그 일단을 찾을 수 있다.

미술은 오락 그리고 정신적 해방과 같은 바람직한 기술의 훈련으로 점차 취급되면서, 주요 분야들이 단어와 숫자의 학문들을 더 강조함에 따라서 이들과 미술과의 관계는 점점 약화되고 후자는 바람직한 보조역으로 전락하고 만다.²⁸⁾

이는 인간능력의 개발에 미술교육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기능적인면의 증가보다는 시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추상표현 미술은 그 교육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중요성은 추상표현 미술의 미적 특징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감화력을 통하여 인류를 비물질적 차원으로 고양하는 한편 창조적인 재능을 발전시키고 강화함으로써 인류에 미치게 되는 유익한 효과라는 가치를 가진다.

미술의 의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관점에 비교해 볼 때, 추상표현

27) 허버트 리드 / 김윤수 역, <현대미술의 원리>, 열화당, 1993, 109쪽.

28) 루돌프 아르하임 저/김정연 역, <시각적 사고>, 이화문고, 1982, 17쪽.

미술세계를 조망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인간의 평형감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방향감을 자극하며 사고력을 민활하게 만들기도 한다.²⁹⁾

미술교육에서 추상 표현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는 까닭이다.

29) F. 프라시나 C. 해리슨 / 최기득 편역 <현대회화의 원리>, 미진사. 1991, 219쪽.

IV. 추상 미술 교육의 실태-설문조사

1. 설문조사 절차와 방법

①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그 실증연구의 대상을 서울 특별시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00명으로 잡고, 35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중학교 1, 2학년 동안의 미술교과 수업을 받은 경험으로 설문에 안정감 있게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지 배포 대상자의 성별은 구분하지 않았다.

② 절차와 방법

추상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선호 등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채택한 설문지 방법을 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것을 모델로 하여, 연구자가 이 연구의 특성과 앞서 살핀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문헌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완성한 것이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23개로, 인구학적통계를 위한 설문 2개, 미술 일반에 대한 설문 2개, 추상표현, 추상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대한 설문 7개, 추상미술의 감상 영역에 대한 설문 3개, 문항, 추상미술수업과 교육에 대한 문항 9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지 구성

	조사의 주요관점	설문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거주지역	26-27(2)
미술 일반에 대한 문항	1. 미술 수업에 대한 생각 2. 미술 수업에서 좋아하는 영역	1-2(2)
추상표현, 추상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대한 문항	1. 추상표현의 개념 2. 추상화에 대한 이해 3. 추상미술 접한 경험 4. 현대미술 개념의 이해 5. 현대미술 감상 경험 6. 현대미술 감상 이해도 7.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도	3-9(7)
추상미술 감상 영역에 대한 문항	1. 추상화 감상 경험 2. 추상화 감상 장소 3. 추상화에 대한 선호도 4. 추상화를 좋아하는 이유 5. 추상화를 싫어하는 이유	10-14(5)
추상미술 수업과 교육에 대한 문항	1. 현대미술사 교육 경험 2. 미술실기 시간 교과서 활용여부 3. 표현 영역 중 선호하는 부분 4. 추상화 이론에 대한 학교 수업 경험 여부 5. 추상화를 통한 감정 표현 경험 여부 6. 추상화 실기 수업 경험 여부 7. 추상표현의 효용성 여부 8. 기초조형 수업경험 여부 9. 각종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에 대한여부 10.9번에 대한 이해도	15-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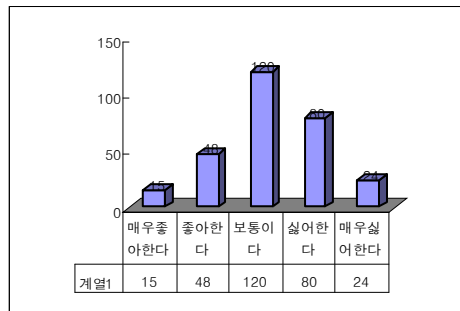
이 연구의 설문지는 각 학교 미술담당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2005. 2. 10. 부터 2005. 3. 20. 사이에 배포 의뢰하였으며, 발송한 총 350부 가운데 수집된 303매중, 유효한 설문지 287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유효 처리하여 그래프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설문결과 분석에서는 소수점 두 자리 이하를 반올림 처리하였다.

2. 조사결과 분석

설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인구학적 통계를 위한 문항, 미술 일반에 대한 문항, 추상표현, 추상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대한 문항, 미술 감상 영역에 대한 문항, 그리고, 미술수업과 교육에 대한 문항으로 나누어 그래프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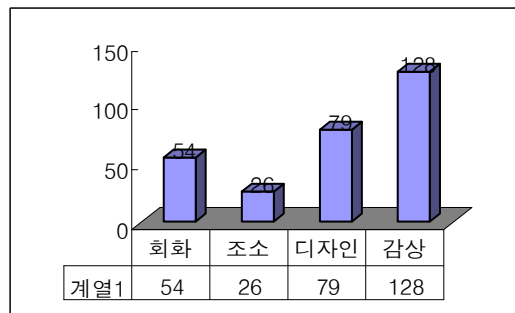
1) 미술일반에 대한 설문

① 평소 미술 수업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응답결과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등 평소 미술수업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2%에 불과 했다. 반면에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등 미술수업에 대해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6%에 달했다. 이 결과로써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입시위주 교과 중시 풍토로 인한 부작용도 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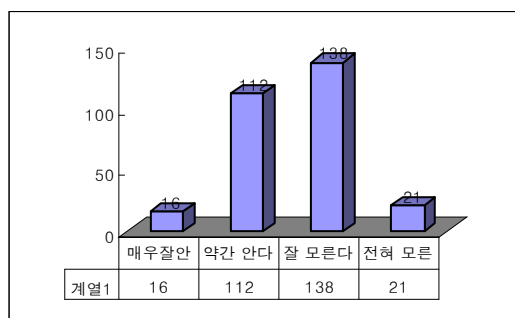
② 미술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 문항은 미술수업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미술 감상 영역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응답자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디자인(29%), 회화(19%), 조소(9%)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수업 내용 중 중요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으나, 본 조사 결과 미술 감상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된 것과 위 1번 설문문의 결과를 종합해 유추해보면, 미술 감상영역이 적극적인 미술행위(예를 들면, 직접그리기 등)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 역시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비선호 경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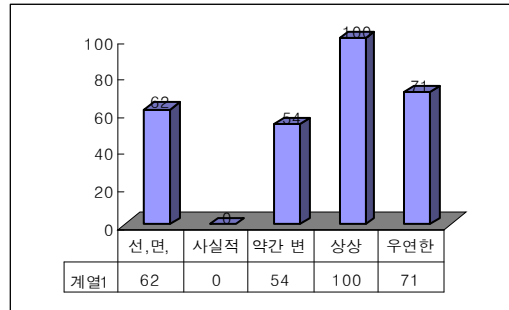
2) 추상표현, 추상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대한 설문

③ 추상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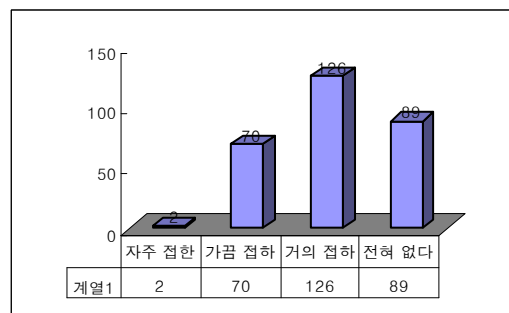
이 문항은 미술표현의 방법 중 추상표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매우 잘 안다”, “잘 안다”등 추상표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도 답해, 추상표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전체의 55%를 차지하였다.

④ 추상표현 미술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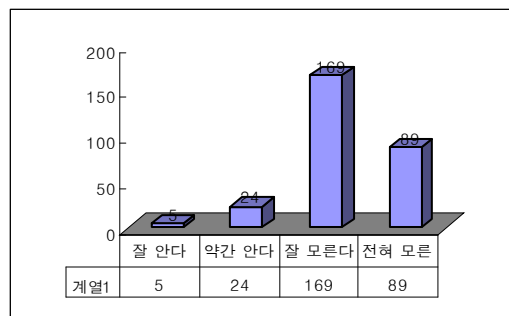
이 문항은 추상화가 어떠한 그림인지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추상화가 “회화의 기본인 선, 면, 색 등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정확히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상상해서 그린 그림(34%)”, “사실적인 것을 약간 변형해서 그린 그림(19%)”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으며, 추상화를 “아무렇게나 하다가 우연히 나온 그림”이라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 문항 역시 설문 3번 문항의 추상표현의 개념을 묻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추상미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⑤ 일상생활에서 추상표현 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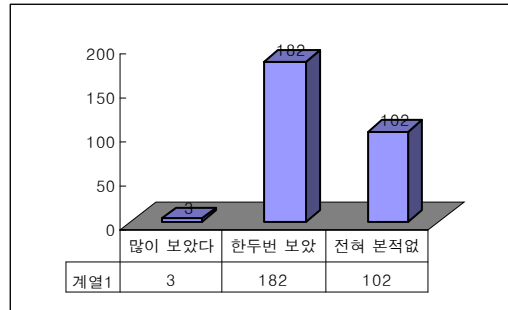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자주 접한다”. “가끔 접하는 편이다” 등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5%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거의 접하지 못한다.”, “전혀 접할 기회가 없다”고 답해 일상생활에서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75%를 차지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추상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 현대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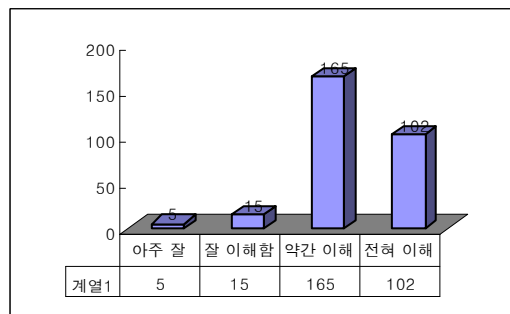
이 문항은 현대 미술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잘 안다”, “약간 안다”라고 답해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0%에 불과 하였다. 반면에 “잘 모른다”(59%), “전혀 모른다”(31%) 등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되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90%에 달하였다.

⑦ 현대미술을 감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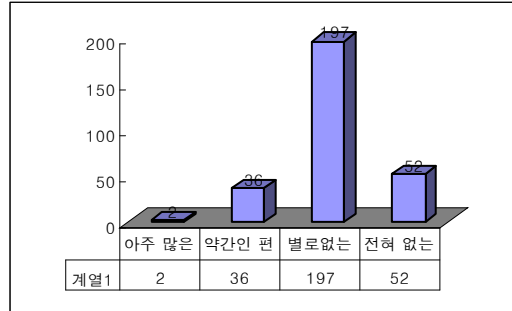
이 문항은 현대미술을 감상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많이 보았다”(1%), “한두 번 보았다”(63%) 등 감상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응답자의 36%나 차지하였다.

⑧ 현대미술을 감상한 경우에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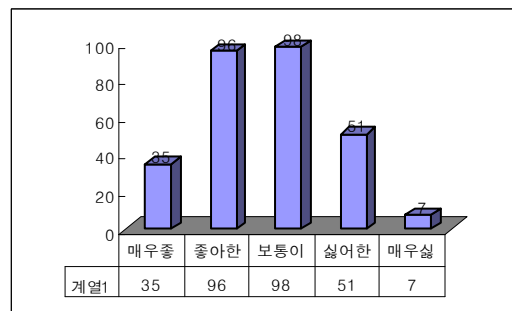
이 문항은 현대미술을 감상한 경우 이해를 할 수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약간 이해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가 36%, “잘 이해한다”가 5%, “아주 잘 이해한다”가 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⑨ 평소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문항은 학생들이 평소 현대미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 “아주 많은 편”(1%), “약간 있는 편”(13%) 등 관심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별로 없는 편이다”(68%), “전혀 없는 편이다”(18%) 등 관심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6%에 달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에 대한 현대미술 이론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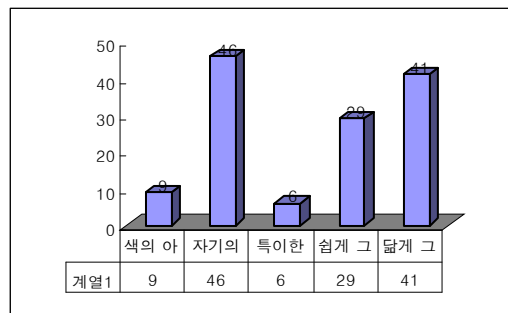
⑩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합니까?



이 문항은 학생들의 추상화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등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5%에 달하였다. 반면에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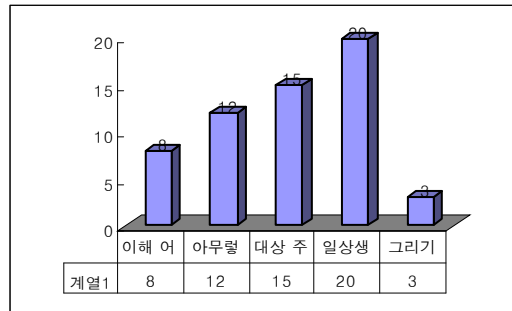
다” 등 추상화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은 2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의 추상화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⑪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상표현 미술을 싫어한다 또는 아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은 이 질문에 응답하지 말고, 대단히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편이다로 답한 학생만 응답하세요)



이 문항은 위 설문 12번 문항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만일 추상화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답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31%),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22%), “색의 아름다움 때문에”(7%), “특이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므로”(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답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의 이유로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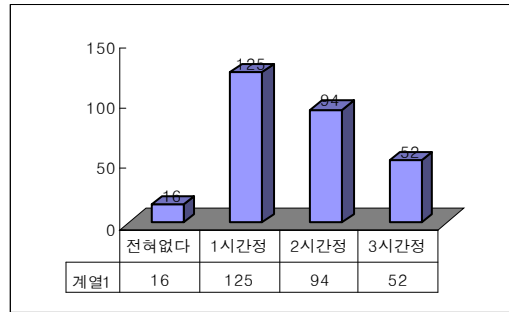
⑫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상표현미술을 싫어한다 또는 아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만 이 질문에 응답하고, 대단히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편이다로 답한 학생은 응답하지 마세요)



이 문항 역시 위 설문 12번 문항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일상생활과의 거리감”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가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학생도 26%나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림 같아서”(21%),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14%),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이유로 “대상이나 주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림 같아서”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상당부분(48%)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과는 추상화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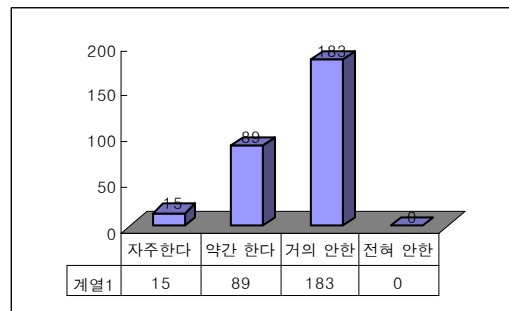
4) 미술수업과 교육에 대한 설문

⑬ 학교에서 현대 미술사에 대한 수업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이 문항은 평소 수업시간에 현대 미술사에 대해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1시간 정도 미술사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시간”(33%), “3시간”(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현대미술사에 대한 수업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도 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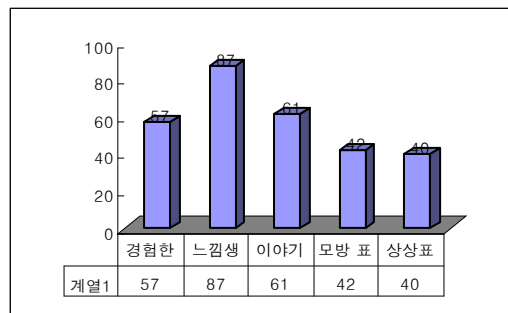
⑭ 미술 실기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합니까?



이 문항은 미술 실기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활용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상당수의 학생들이 “거의 안한다”(64%)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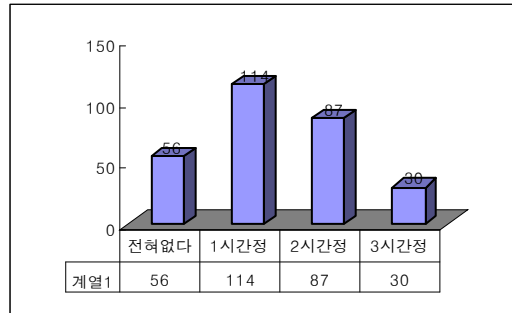
하였다. 반면에 “약간한다”(31%), “자주 한다”(5%) 등 실기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조사된 현대미술, 추상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술실기교육시간에 교과서의 활용빈도가 적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의 적절한 조화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⑮ 표현영역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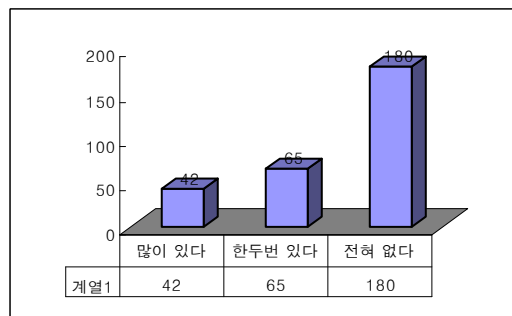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생들이 미술교과 중 표현영역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30%)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험한 것 표현”(20%),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서 표현”(21%), “모방표현”(15%), “상상표현”(14%)의 순으로 나타났다.

⑩. 추상표현의 이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 문항은 추상표현의 이론에 대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1시간 정도”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시간 정도”(30%), “3시간 정도”(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업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0%나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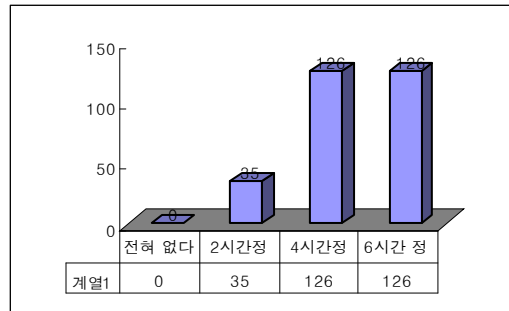
⑪. 추상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문항은 학생들이 추상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적이 있는가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반면에 “많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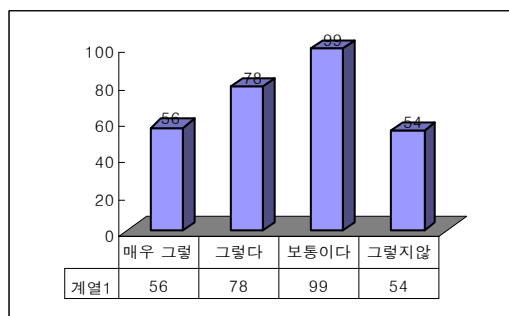
다”(15%), “한두 번 있다”(23%) 등 추상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8%에 불과하였다.

⑱. 학교에서 추상표현에 관한 실기수업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 문항은 학교에서 추상표현에 관한 실기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6시간 정도”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과 “4시간 정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44%씩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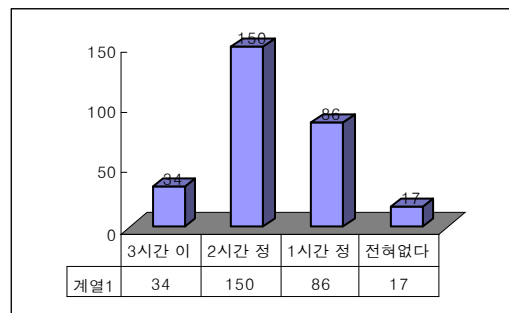
⑲. 표현기법을 이용한 수업이 추상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표현 기법을 이용한 수업이 추상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결과로써, “매우 그렇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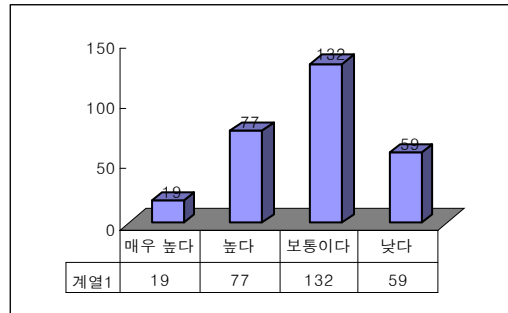
“그렇다”(27%) 등 표현기법 수업이 추상미술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4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1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표현기법을 이용한 수업이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⑩.컴퓨터,비디오,TV등 각종 기자재 통한 미술교육을 받았습니까?



미술수업시간에 각종 기자재를 이용한 미술에 대해 수업을 받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2시간정도”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시간 정도”(30%), “3시간 이상”(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도 6%로 조사되었다.

㉑. 각종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이 문항은 학생들의 매체를 이용한 미술교육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로써, 이해도가 “매우 높다”, “높다” 등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으며, “낮다”라고 응답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도 21%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설 문	문항	응답자	%
성 별	남	129명	45%
	여	158명	55%
거주지	강남	12명	4%
	강북	247명	86%
	기타지역	28명	10%

본 연구의 설문22. 23번 문항은 설문 대상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내용이다.

응답학생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129명(45%), 여학생이 158명(55%)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응답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는 강남 지역이 12명(4%), 강북지역이 247명(86%),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28명(10%)으로 조사되었다.

3. 분석과 논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술 일반에 대한 인식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앞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미술 일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미술 수업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던 바, 미술수업 자체를 좋아 한다는 숫자 22퍼센트보다 싫어한다

는 숫자가 전체 응답자의 36퍼센트로 훨씬 많았다. 이 결과로써 말 할 수 있는 것은 응답자들이 추상표현 미술에 대하여, 좋아한다는 20퍼센트라는 한정된 숫자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로 미술교과목에 대한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원인이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학입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미대 진학생 외에는 미술교육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술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을 감상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4퍼센트를 차지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술수업을 그 내용에 따라 따질 수는 없겠으나, 적극적인 미술행위(예를 들면, 직접표현 하기(그리기)등)가 아니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 역시 미술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비선호 경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추상표현과 추상화에 대한 이해도

논리적으로는 미술수업에 대한 선호도와 상관없이, 추상표현과 추상화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먼저, 추상표현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물었던 바, 추상표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45%였다. 좀더 구체화 시켜서 추상표현 미술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회화의 기본인 선, 면, 색 등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정확히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하여 추상미술의 개념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인정된다. 추상표현이 미술교육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추상표현 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또는 가끔 접하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5%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에서 추상표현 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결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들의 응답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 추상표현 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현대 문화와 사회 속에 추상표현미술은 각종의 영리 비영리적 디자인과 표현들을 통하여 넘쳐나고 있으며, 위에서 본 것처럼, 추상표현 미술 또는 추상화를 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활공간에서 추상미술을 접하더라도 그것을 추상표현의 미술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봄이 정확할 것이다.

학생들은 현대미술을 “잘 모른다”(59%), “전혀 모른다”(31%) 등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었다고 답하여 전체의 90%에 달하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64%가 현대미술을 감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대조적이다. 미술 일반에서 학생들이 감상을 선호한 것과 견주어 볼 때, 그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는 상관없이 ‘현대미술’이라고 명명된 작품들에 대한 감상은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점은 현대미술을 감상한 경우에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나타난다. “약간 이해한다”(전체의 57%)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가 36%였다.

추상미술에 관한 것과 함께 현대미술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론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3) 추상미술 감상에 대한 인식

미술교육의 목적은 추상표현 미술, 추상화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학생들이 미술교과서나 관람 등을 통하여 추상미술을 감상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훌륭한 미술 수업을 받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예전에 추상화를 감상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많은 학생들이 “본적 없다”(62%)라고 응답을 하였다. 추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상한 미술품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 짓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추상화를 감상해 본 곳이 어디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69%가 미술교과서라고 응답하였다.

감상한 경험에 비추어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5%에 달하고, 반면에 “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등 추상화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은 20%를 차지하여, 추상화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체응답자의 35퍼센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담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31%),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22%), “색의 아름다움 때문에”(7%), “특이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므로”(5%)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일상 생활과의 거리감”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응답자의 34%를 차지하고 “대상이나 주제가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학생도 26%나 차지하였다. 추상화를 싫어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추상화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추상미술교육 수업에 관한 인식

학교에서 현대 미술사에 대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시간 정도 현대 미술사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시간”(33%), “3시간”(18%)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현대미술사에 대한 수업은 적어도 한두 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 실기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하는지를 물었더니, “거의 아니다”(64%)라고 응답하였다. 실기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의 적절한 조화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30%)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화의 이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시간 정도라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시간 정도”(30%), “3시간 정도”(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에서 추상화 이론에 대한 수업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0%나 되었다.

추상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8%에 불과하였다. 학교에서 추상표현 실기수업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6시간 정도” 실기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과 “4시간 정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44%씩을 차지하였다. 실기수업은 받은 적이 비교적 많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음이 주목된다.

V. 추상 미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설문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추상표현 미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미술교과 또는 수업 일반에 대한 선호도나 호응도가 낮다.

둘째, 추상미술, 추상표현에 대하여는 첫째로 그 개념적 이해가 안 되어 있다.

셋째, 그 결과, 추상미술에 대한 감상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의 호감을 가지기 어렵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없다.

넷째, 학생들의 추상표현 미술 수업과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서 활용, 실기교육이 부진하다.

결국,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추상미술에 대한 감상능력과 의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지원받고 향상시킬 수 있는 추상적 표현행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개선방안

1) 미술사의 교육

위에서 살펴 본 바, 중학생들의 추상표현 교육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문제는 미술사적 차원에서 현대미술, 추상표현 미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표현 교육의 출발점은 미술사적 차원에서 추상회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미술사 교육의 방법적인 개선과 미술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① 방법상의 개선

미술사는 역사라는 그 성격상 평면적인 설명이나 주입식으로 수업으로 진행될 경우 내용이 건조하고, 관심과 흥미가 떨어져 수업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미술사 교육을 위해서는 각종의 기재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방법이 적절하다.

또한 감상 교육과 병행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감상과 역사의 연계성을 주어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용 가능한 기재로서는, 종래의 슬라이드 환등기, 실문환등기 외에, 텔레비전 녹화 비디오와 컴퓨터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 되어 있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술사 교육을 할 경우, 랜(LAN)을 이용하여 교사가 화상과 수업 내용을 학생

각자의 모니터에 출력을 시킨다거나, 교사가 중앙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시키고, 그 자료를 학생 각자가 불러내어 공부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박물관 관람이나 박물관, 미술관의 대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내용상의 개선

현행 미술 교과서에 현대 미술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미술과 접할 기회는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교육의 내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현대미술을 접하고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결국 현대미술에 대하여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미술사조 전체를 다루기에는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미술 운동에서 분기점을 이루는 다다이즘, 추상 표현주의, 구조주의와 신조형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러한 미술 운동에 뿌리를 둔 사조의 흐름을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미술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방법상의 개선과 병행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쉽고도 재미있는 구성의 교육이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연구를 통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내용전달이 관건이라 하겠다.

2) 추상표현을 위한 발상지도

① 사고 속의 이미지 표현 지도

설문조사 연구를 통하여서도 밝혀진 것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품에 대한 감상이 정서를 가져서 소극적 미술활동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나, 적극적인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 조형 능력은 대상의 본질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비형식적으로 표출하는 능력과 어떤 대상에서 이미지를 얻지 않고 곧바로 생각 속에서 표현할 이미지를 고안해 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학교에서의 추상표현미술의 교육은 순수 조형 요소인 색채와 형태의 탐색을 중심으로 대상의 사실적인 형태와 색채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대상에서 이미지를 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미지를 고안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통한 이미지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표현해 낼 수 있으며, 다양한 표현방법과 시각이 있기에 각자의 생각과 개성을 중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이러한 사고속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본 연구자는 추상표현을 위한 하나의 발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초조형이 될 수 있는 점, 선, 면을 이용한 구상적 표현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

먼저 점을 통한 추상화 발상에 있어서는 유에서 무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점을 통하여도 하나의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분위기 유도를 하여, 점에 대한 추상회화를 접근시키며 학생들이 부담 없이 즐기면서 수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상회화의 표현과 이해를 위하여 점을 통한 추상회화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지도방안으로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형태에서 점으로 표현되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추상회화의 요소들을 상기시킬 수 있게 하는 것과 점의 관찰에 대한 내용과 참고 작품을 학생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점에 대한 추상회화의 가능성과 사물에 대한 관념을 없애고 보는 방법, 점으로의 구성 등을 지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선을 이용한 추상표현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의 추상표현을 통하여 탐구정신과 실험정신이 싹 트게 한다.

미술의 기본요소인 선을 통한 추상회화의 지도를 통하여 미적 잠재력을 발휘하며 보다 가까이 추상회화의 이해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선을 통한 추상회화의 지도 방법으로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형태를 관찰하게 하고 그 속에서 선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표현 활동에 응용하도록 하는 것과 선의 관찰에 대한 내용과 참고작품을 실물 화상기 및 컴퓨터를 통하여 제시하고, 선을 통한 추상회화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면을 통한 추상회화의 표현은 다양하다.

같은 면이라도 색이나 질감의 표면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재료와 평면적 오브제의 활용도 가능하다.

주변의 자연물이나 인공물에서 소재를 얻어 그것을 어떻게 단순화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실적인 형태의 재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 발상에서 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면을 통한 추상표현의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자연물, 인공물의 형태를 관찰하게 하고 그것들을 단순화해 보고 추상적으로 변형시켜 봄으로써 재미있고, 즐겁고 부담 없는 표현활동이 되도록 한다든지, 면의 관찰에 대한 내용과 참고작품을 학생들에게 감상시키고 면을 통한 추상회화의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일이다.

다만, 이상의 점, 선 그리고 면 발상지도는 추상미술의 영역에서 구상적인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며 감성적인 부분이므로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그러한 사고를 염두에 두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교과서의 개선방안

교과서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술교육은 지식의 교육이 아닌 감성의 교육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미술에 대해 감상하고 향유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증연구의 결과로, 중학생에게 실시하여야 할 미술교육 가운데, 현대미술 작품과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기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의 적절한 조화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여, 교과서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현행 미술 교과서의 체계를 살펴보면, 기초이론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감상이나 미술사 부분 또한 등한시하고 있다.

또한 종류별, 영역별로 분류하는데 그치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술의 개념

과 양식을 파악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데 난점이 있고 교과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대적인 형태의 체계를 가짐으로서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미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표현 미술을 위한 교과서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전체 미술에 대한 이해, 개요를 교과과정의 앞부분에 담아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는 미술과 생활이나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미술에 대하여 이해의 정도가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교과서에는 현대미술사에 대한 언급이 극히 빈약하다.

따라서 현대미술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도입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 있는 이해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시대에 맞는 감각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술교과의 단위수가 많지 않아 미술사를 세밀하게 교과서에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품을 감상하였을 때 이론과의 연계할 수 있는 미술사의 지식은 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 이론 수업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기 수업에 비하여 지루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실기를 함으로써 이론을 이해하게 하는 교습방법이 요구되고, 미술교과서는 이러한 연계수업을 위하여 새로이 구상되어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중학교 미술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잠재된 소질을 계발할 기회를 허락하지 못한 채, 소묘나 풍경화 또는 정물화 식의 회화 표현에만 빠지고 추상표현 미술에 대한 이론이나, 감상에 무력함에 착안하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추상미술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그에 따른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추상적 미술에 관한 이론을 국내외의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한 다음, 서울특별시내 소재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추상표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미술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에 이를 수 있는 자연적인 감상능력과 자기표현 의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에 따른 학교 교육은 소극적인 미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학입시 하나를 위한 교과위주의 현실적인 한계와 추상미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한 탓에, 적극적으로 추상표현 미술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학생들에게 추상회화의 이해와 표현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현대 미술사의 교육, 특히 그 속에서의 추상미술의 교육의 필요성, 또한 그에 따른 추상표현을 위한 발상지도와 현행 교과서 내용의 개편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첫째로, 미술사 교육을 위하여 평면적인 설명이나 주입식 수업에서 탈피

하여 각종의 기자재를 이용한 다양한시청각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현대 미술사의 중요부분을 미술교과에 도입하고,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쉽고도 재미있는 내용구성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둘째로, 추상표현을 위한 발상지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사고속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한 하나의 구상적인 표현이며 기초 조형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점, 선,면을 통해 추상표현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과서의 개선은 현행 미술 교과서에 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 특히 현대 미술사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추상표현 미술을 위해서는 5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에 대한 내용을 도입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 있는 이해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시대에 맞는 감각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술은 지식의 교육이 아닌 체험의 교육이다. 또한 미술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은 한마디로 심미적인 인간이다.

미술교육은 장인을 길러 내기 위한 장이 아니라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한 장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술교육에서는 자연스러운 예술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입시와 관련된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연의 대상에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발견하게 하는 일은 시급하다.

추상표현 미술은 눈에 보이는 대상의 재현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미술교육에 대한 반성이며 개선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추상미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재복, 「미술과 수업의 평가」, 일지사, 1977

김 정, 「아동의 미술 교육 연구」, 창지사, 1977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0

김춘일, 「미술교육론」, 흥성사, 1985.

문교부, 교사용 지도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0.

이규선외, 「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4

이 일, 「현대미술의 시작」, 미진사, 1985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61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1993

전상범, 「아동과 미술교육」, 조형교육학회, 1991

정순목, 「예술교육론」, 교육과학사, 1974

논문집

노부자, 중학 미술 교과서의 구조 고찰, 한국 조형학회, 1991

유현선, 중학교 미술과정의 추상회화 지도방안 연구-발상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동진, 미술과Curriculum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

정옥경, 표현기법을 이용한 수업 모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조 송, 추상적 상식형식에 의한 초월성 추구,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조보경, 체험을 통한 자유로운 추상표현연구-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2003

II. 국외문헌 및 번역서

F. 프라시나 C. 헤리슨 / 최기득 편역 <현대회화의 원리>, 미진사. 1991.

H. W. Janson & Dora Jane Janson, 유홍준 역, 회화의 역사, 열화당,
1991.

루돌프 아른하임 저/김정연 역, <시각적 사고>, 이화문고. 1982.

모도아끼 히로시 저 / 김수석 역 <조형심리학 입문>, 지류문화사. 1993.

칸딘스키, 권영필 譯.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허버트 리드 / 김윤수 역, <현대미술의 원리>, 열화당. 1993.

Abstract

A study on a plan for improving abstract art education

**Lim Sun Ji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Dept.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A middle school art curriculum shows that the subject of fine art actually has similar or repeated system or content throughout Grade 1, Grade 2 and Grade 3. In reality, the students do not experience various expressive activities properly, losing interest in fine art or receiving the impression that it is boring. Therefore, the researcher sees that it is important to give them an opportunity of getting accustomed to the works of abstract expression by contacting and expressing them much in the middle school art period, which is most important in the art class of youth.

Based on studying the literature on abstract art, herewith, the researcher surveyed in the form of survey research how the students in the third grade of a middle school recognized the art, and presented the problems from the survey and the plans for improving them.

Investigating students' awareness of abstract art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findings of the questionnaire revealed the problem that they had a low level of preferring or responding to the subject of fine art or the general of classes. As a result, they could have no longer a friendly feeling toward abstract art and could not heighten the understanding of the works despite their appreciation and experience for the art. Use of textbooks and practical education were inactive in abstract art class and instruction for them.

Finally, the survey research showed that the respondents had the ability and will to appreciate abstractly expressed art in general, but could not have opportunities for the act of abstract expression that could be theoretically supported and improved, which requires existing abstract art education to be examined.

At the level of art history education, a guidance of ideas for abstract expression, and textbook reorganization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plans for solving the problems and improving abstract art education in a middle school.

The study is composed of six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consists of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with tasks and methods of research. Chapter 2 explor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abstract art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rt. Chapter 3 described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art education and sought the necessity for abstract art education in it. As an investigation into students' awareness of abstractly expressed art education Chapter 4, first of all, explained survey object and survey instrument(questionnaire), survey procedure and survey period, and how to process data. It analyzed and discussed the findings of the survey,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ponse through a questionnaire. Chapter 5 indicated the problems revealed through a positive analysis that current middle school art education has in guiding students in their abstract expression and explored the plans for improving them. Chapter 6, Conclusion, summari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지는 추상표현 교육 방법에 관한 논문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의 답변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문지는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진실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각 설문에서 해당되는 번호 뒤 ()에 V표 해 주십시오

<미술일반>

1. 평소 미술 수업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 ② 좋아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싫어한다()

⑤ 매우 싫어한다()

2. 미술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① 회화()

② 조소()

③ 디자인()

④ 감상()

<추상표현, 추상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

3. 추상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약간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4. 추상화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회화의 기본인 선, 면, 그리고 색 등으로 표현한 그림()

② 대상을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한 그림()

③ 사실적인 것을 약간 변형한 그림()

④ 상상해서 그린 그림()

⑤ 아무렇게나 하다가 우연히 나온 그림()

5. 일상생활에서 추상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한다()
- ② 가끔 접하는 편이다()
- ③ 거의 접하지 못한다()
- ④ 전혀 없다()

6. 현대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안다()
- ② 약간 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7. 현대미술을 감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많이 보았다()
- ② 한 두 번 보았다()
- ③ 전혀 본 적이 없다()

8. 현대미술을 감상한 경우에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잘 이해한다()
- ② 잘 이해한다()
- ③ 약간 이해한다()
- ④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9. 평소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 ① 관심이 아주 많은 편이다()

- ② 관심이 약간 있다()
- ③ 관심이 별로 없다()
- ④ 관심이 전혀 없다()

<추상표현 미술의 감상>

10.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합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 ② 좋아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싫어한다()
- ⑤ 매우 싫어한다()

11.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상화를 싫어한다 또는 아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은 이 질문에 응답하지 말고, 대단히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편이다로 답한 학생만 응답하세요)

- ① 순수한 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므로()
- ② 보이지 않는 세계, 각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므로()
- ③ 특이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므로()
- ④ 나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 같아서()
- ⑤ 어떤 실물과 닮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12. 추상표현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상화를 싫어한다 또는 아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만 이 질문에 응답하고, 대단

히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편이다로 답한 학생은 응답하지 마세요)

- 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
- ②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림이므로 ()
- ③ 대상이나 주제가 없기 때문에 ()
- ④ 우리 생활과는 관계가 먼 것 같아서 ()
- ⑤ 그리기가 어려워서 ()

<추상 표현 미술 수업과 교육>

13. 학교에서 현대 미술사에 대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1시간 정도 있다()
- ③ 2시간 정도 있다()
- ④ 3시간 이상 있다()

14. 미술 실기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합니까?

- ① 자주한다()
- ② 약간 한다()
- ③ 거의 안한다()
- ④ 전혀 안한다()

15. 표현 영역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경험한 것 나타내기()
- ② 느낌이나 생각한 것 나타내기()
- ③ 이야기 듣고 상상하여 나타내기()

- ④ 남의 그림을 모방하여 그린다()
- ⑤ 상상의 세계 나타내기()

16. 추상표현 미술 이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1시간 정도()
- ③ 2시간 정도()
- ④ 3시간 이상()

17. 추상표현 미술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 ① 많이 있다()
- ② 한 두 번 있다()
- ③ 전혀 없다()

18. 학교에서 추상표현에 관한 실기수업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2시간 정도()
- ③ 4시간 정도()
- ④ 6시간 이상()

19. 표현기법을 이용한 수업이 추상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20. 각종 기자재(컴퓨터,비이오TV등)을 통한 미술교육을 받은적이 있나요?

- ① 3시간 이상 ()
- ② 2시간 정도 ()
- ③ 1시간 정도 ()
- ④ 전혀 없다 ()

21. 20번에 대한 수업의 이해도는?

- ① 매우 높다 ()
- ② 높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낮다 ()

<일반적 질문>

(해당란에 "○"를 하시오)

22. 학생의 성 별은?

- ① 남자 ()
- ② 여자 ()

23. 학생의 거주지는?

- ① 강남 ()

② 강북 ()

③ 기타 ()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